

光日春秋

이서항



지난 달 초순 전북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

오늘의 현실이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국 군사적 위협은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경제·사회적 안정에 해를 끼쳐 중국에는 국가의 안보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는 '비전'

'21세기형 안보위협'에 대비하자

통적' 또는 '비재래적' 안보 위협이라고 부른다. 몇 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창궐했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같은 전염질병과 테러·마약 등이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둘째, 위협이 현실화되었을 때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유과정도 일회성이 아니며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위협에 대한 대비나 실제 위협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대응은 국제협력에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이들이 결국은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개별 인간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삶의 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찍이 유엔개발계획(UNDP)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인간안보'(human security)개념을 설정, 개인의 삶과 관련된 안전과 안보가 국가안보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북한이나 이웃 국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즉 인간의 안전과 삶의 질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인은 안보 문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도 하루 빨리 전염성 질병 그리고 기후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21세기형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쇠고기 수입 중단'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중단 조치를 하려면 재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협상은 쉽지 않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던 모르지만 국가간 협상을 뒤엎고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수입중단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문과 정면 배치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이 선뜻 재협상에 나설 리도 없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석 수위브 대표는 "한·미 간에 합의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이나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국민들이 검역 주권을 내주었다고 비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입중단 조치를 관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대안은 아직 없다. 이번 약속이 틀렸다는 민심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정부 스스로 협상 과정의 잘못을 인정할 만큼 책임론과 함께 국민적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수학여행 버스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또 발생했다. 7일 제주도 한라산 북쪽 아승대저수지 앞 1100도로에서 순천시 효천고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버스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일에도 전복 전과로 진주에서 수학여행 버스사고로 수 십명의 학생이 다쳤다. 수학여행단 전세버스는 곳곳에 사고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십 수대의 버스가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은 채 속행 '기러기 질주'를 일삼는가 하면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사고가 난 1100도로는 내리막 급경사에다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다. 특히 지난달 3일에는 서울 광양교 수학여행 버스가 앞차들 들이받아 3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도 당국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가 불과 1개월여 만에 똑같은 장소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일도 전복 전과로 진주에서 수학여행 버스사고로 수 십명의 학생이 다쳤다. 수학여행단 전세버스는 곳곳에 사고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십 수대의 버스가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은 채 속행 '기러기 질주'를 일삼는가 하면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번 사고에서처럼 안전벨트 착용도 허술하기 그지 없다. 심지어 전세버스 업체가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 현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수학여행 버스로 선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학여행 교통사고는 해마다 뿔뿔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구례군 광의면 사람재에서 순천 모 중학교 체험 학습단 버스가 굴러 학생 5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18일과 21

일에도 전복 전과로 진주에서 수학여행 버스사고로 수 십명의 학생이 다쳤다. 수학여행단 전세버스는 곳곳에 사고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십 수대의 버스가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은 채 속행 '기러기 질주'를 일삼는가 하면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번 사고에서처럼 안전벨트 착용도 허술하기 그지 없다. 심지어 전세버스 업체가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 현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수학여행 버스로 선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금영

오나전 씨는 소중 씨와의 만남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를 즐겼던 약속 장소에 두 사람의 사랑을 증거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나전 씨는 두 사람이 앉아 답소를 나눴던 공원에 미리 나와서 커다란 나무줄기에 '나전♥소중'이란 글자를 써놓았다. 이때 소중 씨가 도착했다.

"나전 씨의 뛰어난 배려예요?" "크크. 맞아요. 원의 지름이 커질수록 둘레 길이는 2파이(π)배만 커지는 데, 형성층 안쪽과 바깥쪽에 똑같은 개수로 세포가 생겨나면 빈 구멍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보통의 나무는 형성층 안쪽에 4개의 세포를 만들면 바깥쪽에는 2개 정도의 세포를 만들어요. 나무마다 형성층 안쪽과 바깥쪽에 만드는 세포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결집의 모양도 다르죠."

"어머? 이게 뭐람. 유지하게..." "마음속으로는 좋으면서 내 숨 떨지 마세요." "흠. 나무는 해마다 쑥쑥 자라니까 하트에 담긴 우리의 사랑도 움직이겠지요?" "우리의 사랑이 움직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 "다행히도 우리의 사랑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하트의 면적이 넓어 진답니다. 우리 사랑의 크기만큼. 헤헤"

"그럼 형성층 안쪽은 세포가 꼭 들어차도 바깥쪽은 빈 곳이 생겨나니까 임신한 엄마의 튼 뱃살처럼 갈라질 수 있겠네요?" "오! 놀라운 추리력이에요. 목재를 건조할 때 가장 잘 갈라지는 곳이 지름 방향인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럼 이주시가 같은 세포네요?" "이주시가처럼 기다란 세포는 나무가 위로 자라게 만드는 세포예요. 일종의 빨대처럼 위로 쭉쭉 자라나게 만드는 세포인데 위로 뾰족한 부분을 맞대면서 자라나죠."

나무에 새겨진 사랑은 움직일까?

"정말요?" "나무가 자라는 원리를 알면 이해가 쉬워요. 겹질 바로 안쪽에 형성층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세포분열이 일어나 나무가 커질 수 있어요." "나이테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나무는 봄과 여름에만 자라고 늦여름부터는 겨울을 대비해 성장을 멈춰요. 그런데 봄에 만드는 세포는 성장이 왕성해서 크기가 크고 세포벽에 양분이 쌓이지 않아 밝게 보이죠. 반면 여름에 자라는 세포는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양분을 분배하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가 작고 세포벽 내부에 다양한 화합물이 축적되죠. 그래서 어둡게 보이죠.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겹겹이 쌓이면 그게 나이테예요." "그래도 나무에 '새겨진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해 못했어요." "나무의 세포는 크게 원형이나 다각형으로 생긴 세포와 이주시가처럼 기다란 세포, 두 가지가 있어요. 원형이나 다각형 모양으로 생긴 세포는 옆으로 크게 자라게 하는 세포예요."

의 빨대처럼 위로 쭉쭉 자라나게 만드는 세포인데 위로 뾰족한 부분을 맞대면서 자라나죠." "그럼 한번 새겨진 우리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나무도 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옆으로 기다랗게 변하겠죠? 그래서 하트의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역시 나전 씨는 저의 사랑을 받을 만해요. 쑥..." "소중 씨에서 달콤한 키스를 받았으니 이번 이벤트는 성공한 듯하다. 하지만 소중 씨는 "사랑도 좋지만 나무를 흉하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걱정하지 마요. 나무결집은 대부분 떨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갈집을 내지 않는 한 나무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 다행이에요." 나전 씨는 나무에 사랑을 새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학칼럼니스트>

아직도 차창밖 담배꽂초 버리는 운전자들이...

아침 출근길을 돌이켜 보면,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며 피우던 담배를 도로변에 무심코 던지고 차에 오르는 모습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담배를 획 집어던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제한해 다녀야 하지만 70km로 질주하는 모습도 쉽게 본다.

깨끗한 거리에서 출근 차량을 기다리고, 학교 앞 도로에선 안전운행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출근길이 됐으면 한다. ▲김진대·광주시 서구 치평동

기고

김석주



우리는 과거라는 역사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생활을 익혔으며, 미래를 내다보기도 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었던 조상의 일상생활이나 사고방식 등에 다가서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선조의 삶에 대한 흔적이거나 생활양식 등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전통문화다.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아침을 먹고 식구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입에 물었다. 옆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열른

이고, 신앙임은 물론, 도덕과 관습의 총체다"라는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의 말이 생각나기도 했다. 이처럼 전통문화는 옛날에 우리 조상이 형성했으며, 한 개인의 독자적 행동이나 사고의 유형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양식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물은 절대로 될 수 없으며 모두가 공유하는 민족의 자산이 되어야만 한다. 선진대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영구히 보존하려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동치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자

담배에 불을 붙여 주었다." 이 광경은 우리의 입장으로만 생각했다면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전통이나 관습은 나라와 민족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범위는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과거가 되는 것이며, 지방마다 다르기도 하고, 계층이나 신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에 비교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마치 자기집 제사 자랑이나 하고 다니는 팔불출의 행동이지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다. 얼마 전에 전통의 향기, 문화의 향기, 명인의 향기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집에서 "전통을 알면 미래가 보이고, 문화를 알면 밥이 보인다."라는 표어를 보았다. 표어를 읽는 그 순간 새삼스럽게도 전통은 조상이고, 고향이며, 어머니의 품속 같은 포근함까지 느껴졌다. 그리고 "문화는 삶의 현실임과 아울러 예술

개혁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문화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문예진 곳기 많다. 그렇게도 아름답던 산천은 가든과 모델로 환경정리가 되어 버렸고, 급수강산이라고 불리던 조국의 산하는 고속도로와 골프장 건설로 등허리가 절단되어 그 골골들이 너무 흉하다. 미래학자들은 "GNP가 1만 불 시대가 되면 전통문화가 보이고, 3만 불 시대가 되면 문화를 즐길 줄 안다"라고 했다. 경제마인드 중요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전통의 소중함과 문화마인드의 절실함도 같이 알아야 한다. 전통문화의 귀중함과 보존의 시급함이 코앞까지 찾아왔다. 국민 모두가 전통문화에 관심만 갖는다면 산 좋고 물이 좋아 살기 좋다는 우리나라를 골목 없는 공장산업의 왕국, 더 나아가 전통문화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국전통문화교육원 이사장>

월급제 대신 일당제 택한 日 후쿠시마현 지방의회

며칠 전 일본에 갔다가 본받을 만한 사실을 배우고 왔다. 후쿠시마현 지방의회 의원들이 월급제를 폐지하고 일당제를 택했다. 그 이유는 활동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주민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 업무에 전념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사업이나 업무를 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그야말로 '부업'처럼 하고 있다. 일본 지방의원들이 받았던 월급은 연간 340만엔(약 3천400만원)이었다. 그러던 것을 후쿠시마현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할 때

만 하루 3만엔(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후쿠시마현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지방의원 의정비가 4분의 1로 줄어 든다고 한다. 지방의원의 활동은 지역사회 봉사 기본 정신이라며 스스로 제 살을 깎은 일본인들의 결단에 감동을 받았다. 우리 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 지방의원들은 재갈짜기는 커녕 의정비 인상에 보좌관 재계가 의무화하려고 한다. 일본 지방의원의 일당제 도입을 보면서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승욱·광주시 서구 벽진동

無等鼓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태양광에너지다. 생산원가가 비싼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신기술 개발이 잇따르면 시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도 갖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햇빛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내는 연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839년 태양전지가 처음 만들어졌으며 1950년대부터 인공위성의 동력원으로 사용됐다. 태양열을 불잡아두는 집열장치가 핵심 기술이다. 나라마다 태양열 이용 기술을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태양열발전이 주력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반면 유럽은 대규모 집단 난방 및 급탕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초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태양광에너지 연구에 뛰어들었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일사량 등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최적지로 떠올랐

다. 전국 태양광발전량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571곳에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은 중대 기रो에 처했다. 기존 전력과의 차별을 보존해주는 정부 지원금이 20% 이상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태양광 발전소가 대부분 산림지역에 들어서고 있어 나무를 베어내는 등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해남과 영광 등 도내 8개 시군, 10여 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관리인도 극소수로 고용 창출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친환경 그린에너지의 선두 주자인 태양광발전소가 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태양광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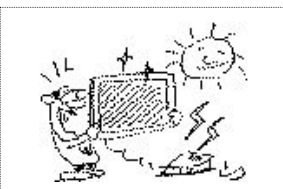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